

“코로나 시국은 삶과 죽음의 경계점”

보성 출신 문학권 시인 시조집 발간 5년간 발표 작품 ‘오후의 시차’ 엮어 동아일보·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신인 작가들 스테디 활성화 필요”



“코로나 시국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간단치 않습니다. 감염병의 실존적 환경 너머의 다양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지요. 삶과 죽음, 진실과 거짓, 과거와 현재의 간극을 보여주는 경계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학권 시인은 코로나 팬데믹의 의미를 그렇게 말했다. 깊이있는 해석에 호기심이 일었다. 광주 교대 교수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그는 대상이나 현상을 쉬우면서도 색다른 시각으로 풀어내는 ‘재능’이 있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겸손하다. “나는 부족하며 부족하기에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시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한다. 그저 듣기 좋아하고 하는 말은 아난듯 하다. 언제나 진지하며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으려 한다.

이번에 펴낸 시조집 ‘오후의 시차’ (책만드는 집)는 다소 어둡고 칙칙한 책 표지가 눈에 띈다. 제목이 환기하는 나른한 오후의 느낌이 전해온다.

“어둡고 탁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요청해서 디자인된 것입니다. ‘오후’라는 시간상의 설정 자체가 불온하게 오염된 실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오염된 실존적 지점을 ‘오후의 시차’라는 표제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그동안 네 권의 시조집과 세 권의 시집을 펴냈다. 이번 작품집은 5년 가까이 발표해온 시조들을 새 시집의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그는 “내 작품의 스타일이 현대시조의 아방가르



드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실험적 형태를 비롯해 사실시조의 비중도 높다”며 “지금까지 실험적으로 추구했던 것을 이번에 시도함으로써 소용과 ‘문학적 논란’의 지점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그는 도전적인 ‘문학청년’이었다. 사석에서 문학 얘기를 나눌 때면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각의 아이디어를 풀어내곤 했다.

그는 199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199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로 등단했다. 1991년에는 소년중앙에 동시가 당선돼 일찌감치 ‘전천후 시인’의 길로 들어섰다. 시조는 우리의 옛 전통과 정서를 담아내며, 시는 현대시의 감성과 기발한 수사를 풀어내게 한다.

동시는 맑은 아이들의 심성에 근거한다고 하면 그의 내면에 자리한 ‘문학적 자아’는 상당히 다채롭고 포괄적이다.

그에게 시 쓰기는 삶의 본질에 육박하는 상징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 가운데 시조는 하나의 서사 덩어리로 완결되는 장르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채롭다.

이번 시조집에서는 ‘여행자의 골목’이라는 연작시가 눈에 띈다. 그는 여행지에서 만난 ‘사물들과의 대화’라고 했다. “본질적으로 글을 쓰는 자아의 내면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곳에서 자아의 일면을 만날 수 있으리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은 ‘혼밤, 혼술’이 대세입니다. 여행지에서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지요. 타

인과는 ‘시차’가 있는 생활을 하므로 동행은 두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여행지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결핍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핍된 상태로서의 타자이거나 그리워하는 대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와 같은 고독한 실존적 상태를 ‘여행자의 골목’으로 표현한다. 그곳에서 만난 사물들은 ‘맨홀’을 비롯해서, ‘가판대’, ‘철제 난간’, ‘송전탑’, ‘밀국수’, ‘치솔’ 등과 같은 것들이다.

“점액질이 흐르는 도시의 하복부에서// 얼굴 하나 갖 솟은 꽃처럼 떠올랐다, 지하관을 따라가다 모서리를 잃었던 길바닥을 굴러가는 바퀴처럼 위태했다, 생애의 자궁 속으로 울음을 쏟아붓는// 구멍을 매달고 있는 검은 꽃잎, 입술!”

‘여행자의 골목’이라는 부제가 붙은 작품 ‘맨홀’의 전문이다.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물에 지나지 않지만 시인의 눈에는 새로운 의미로 포획된다. “점액질이 흐르는 도시의 하복부” 아래에는 “생애의 자궁 속으로 울음을 쏟아붓는” 그런 순간과 시간이 꿈틀거린다. 화자는 우리는 모두 세상에 던져진 ‘여행자’이며 그 여행자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볼 때 심오하고 다채로운 상징들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치면서도 그는 발상의 참신성과 깊이를 강조한다. 결국 사유의 깊이는 시의 깊이를 결정한다. 문학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철학 서적 읽기를 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또한 “즉시적인 감흥으로 시를 쓰기보다는 대상 이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한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라고 덧붙인다.

그는 지역사회의 문학적 활성화를 위해 하나의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신인 작가들이 모여 스테디를 하거나 합평회를 하는 등 모임이 활발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현대성은 그에 걸맞은 스타일의 발견 없이는 정당할 표현도 없기” 때문이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그 작가의 안목을, 연출가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안목과 시선을 통해 내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정신적인 의미에서) 배우고 실천할 것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타오르는 강’과 나주’ 학술발표회

문순태 작가 소설 배경...나주학회, 시낭송·천연염색작품전 등

문순태의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 (소명출판)은 구한말 노비들의 삶을 모티브로 민중운동의 발생과정을 역동적으로 그린 수작이다.

나주 공상면 토지 수탈 사건과 노비세습제도 폐지, 동학농민운동, 목포 개항,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근대사의 주요 사건들이 등장한다. 한국 근대사의 격랑을 겪은 이 땅 민초들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히 1880년대부터 1930년대 나주 영산포와 영산강의 지리, 방언, 생애, 공간 등 근대도시적 콘텐츠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 향후 인문적 스토리는 물론 다양한 콘텐츠의 전이가 무궁무진하다.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을 토대로 한 학술발표회와 시낭송, 시화전, 천연염색작품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나주학회는 오는 17일 나주 어울림센터(나주시 삼영동)에서 ‘타오르는 강’과 ‘나주’를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나주시에 소설 공간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영산강 유역의 인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나주학회 정병봉 문학반이 주관한다.

이날 발표는 저자 문순태 소설가가 ‘타오르는 강’과 영산강’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김봉근 원광대 교수가 ‘새끼내 사람들의 토지수호 투쟁과 근대적 민중의식’을, 김세진 전 생명의숲 사무처



장이 ‘타오르는 강’ 작품 속에 표현되는 나무, 꽃이아기를 모티브로 발표한다.

공간 활용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발표도 있다. 이상준 동신대교수가 ‘타오르는 강’의 공간 현황 및 활용 방안’을 이야기한다. 이어 김남

철 나주학회 이사는 ‘독립전쟁 한말 남도의병을 길을 찾다’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어 이영지 나주학회 문학반장은 ‘타오르는 강’ 작품 소개’를 할 예정이며 전숙나현수 시인은 시 ‘타오르는 강’을 낭송한다. 최미성 동신대 교수는 ‘타오르는 강’을 주제로 한 천연염색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나주학회에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여러 차례 나주, 영산포 일대 소설 배경지와 역사 현장을 답사했다. 나주학회는 지난 2021년 9월 27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 이후 나주지역의 역사,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등 지역학으로서의 나주학을 연구하는 단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깊은 사유·절제된 언어 ‘시조의 미학’

강경화 시인 시조집 ‘나무의 걸음’ 펴내

지난 2002년 ‘시조시학’ 신인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강경화 시인이 시조집 ‘나무의 걸음’ (아꿈)을 펴냈다.

세 번째 시조집인 이번 작품집에는 생태적 정신이 고스란히 투영된 시조가 다수 수록돼 있다. 노장수 시인의 평대로 작품들은 “재기발랄한 일상적 발화와 함께 존재에 대한 생명주의적 지상을 노래하는 면”을 드러낸다.

생태적 정신은 한편으로 “제 상처 아프지 않게 제 일 떨귀 덮는”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으로 치환되기도 한다.

“어둠을 삼키며/ 나무가 걸어온다// 온전히 묻히지 못해/ 뿌리는 항상 꺼치발// 차가워 온기 한 줌 찾아/ 더듬더듬 길을 간다// 생의 줄기 밀어내어 한 발씩 내딛는 일은/ 앞서 내린 뿌리를 독하게 끊어내리는 일//(중략)// 뒤지 못한 눈물이/ 하얗게 흘날린다/ 뿌리는 상처를 끌고// 발뭍발뭍/ 내게 온다”

표제시 ‘나무의 걸음’은 생태적 정신과 고통의



감내가 투영된 작품이다. 우리에게 삶의 어느 일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하다. 사유는 깊고 언어는 절제돼 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간결함은 읽는 이에게 시조미학의 맛을 느끼게 한다.

이승희 시인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감각과 따뜻한 감성으로 시상을 전개해가는 탄탄한 서사가 돋보이는 시집”이라고 평한다.

한편 강경화 시인은 광신대 사회복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9년 ‘금호문화’ 우수상, 2019년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무등시조문학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사람이 사람을 견디게 한다’, ‘메타세콰이어 길에서’ 등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8~10일 유지원·김명우·로렌츠 마이어 작가 참여...세미나도 개최

광주시립미술관이 국제레지던시 2022년 오픈스튜디오를 8~10일 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북구 하서로 52 중외공원 내)에서 개최한다.

국제레지던시는 창작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작가들의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번 오픈 스튜디오는 코로나 19로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중지됐던 작가들의 해외 교류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스튜디오 입주 작가는 유지원(영상, 설치), 김명우(영상, 설치)로 이들은 입주기간 동안 꾸준한 활동을 통해 지역작가로서 기량을 보여주었다. 특히 유지원 작가는 2023년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로 선정되었으며, 제 28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했다.

해외 작가도 참여했다. 광주와 교류하고 있는 독일 뮌헨시 선정작가 로렌츠 마이어가 지난 11월

국제레지던시에 입주, 작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광주의 정운학 작가가 독일 뮌헨에 파견돼 3개월간 현지에서 머물며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서는 1년간 활동해온 입주 지역작가의 작업현장을 직접 체험 하고, 다시 시작한 국제교류와 해외작가를 소개한다. 또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미술관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국제교류 재개관련 해외미술 현황과 향후 레지던시 및 국제교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갖는 세미나도 개최한다.

오픈스튜디오 관람시간은 8일은 오후 2시 30분 ~ 5시까지며 9~10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